

12월 13일(목), 제5회 산업보건학술제 개최

협회는 12월 13일(목),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제5회 산업보건학술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사 및 학계, 전문기관의 산업보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제5회 산업보건학술제에서는 산업보건 발전에 기여가 큰 우수 학술 논문 및 제도개선 관련 논문과 현장 사례에 대하여 시상하고 산업보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심포지엄 행사도 가진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의료종사자의 직업환경보건'을 주제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02-2046-0541(산업보건학술제 담당자)

「외국인근로자 진료기관 사업자 실무역량강화」 2차 교육 실시



11월 6일(목), 협회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상록수보건소(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세종병원 등 21개 기관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진료기관 사업자 실무역량강화」 2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안산을 비롯한 경기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진료기관(단체)과 무료진료소 등의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지원에 대한 정책방향과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성, 외국인근로자 관련 국내법,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이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외국인 의료상담서비스,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활동 사례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KIHA NEWS

경기북부센터, 유관기관과 사업장관계자 워크숍 개최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는 지난 10월 29일(월)~30일(화), 1박 2일 일정으로 원주 치악산 호텔에서 유관기관 및 사업장 관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안심일터만들기 안전보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워크숍은 '웃음치료', '위험성평가', 'MSDS 제도'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안전보건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각 유관기관들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안심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결의했다.

울산센터, '제7회 울산 119 대축제' 참여



지난 10월 18일(목)~20일(토) 3일 동안, 울산 산업보건센터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제7회 울산 119 대축제'에 참여기관으로 참가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서 주최하는 '울산 119 대축제'는 올해로 7회째를 맞았으며, 이번에는 '역동의 푸른 울산, 안전은 실천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재난유형별 안전체험장, 연령대별 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 울산센터는 산업보건과 협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무료 검진도 실시하였다.



협회, 음주폐해 예방의 달 행사 발대식 참석



11월 1일(목), 보건복지부와 과량새포럼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음주폐해 예방의 달’ 발대식을 열고 절주 포스터 전시회, 건강체험 부스,

절주 플래시몹 공연 등의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에는 ‘술 마시면 변하는 당신, 깨어보면 늦습니다’를 주제로 보건소, 알코올상담센터, 대학절주동아리, 건강증진재단, 국방부, 경찰청, 전국 병·의원 등 471개 기관이 토론회와 절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과량새포럼은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협의체로 구성되어 2008년 이후 매년 11월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정하고 음주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왔다. 협회도 주관 기관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0월 협회 교육 결과

■ 보건관리자 교육

교육명	교육일자	교육장소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신규혼합과정	10. 10-12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신규과정	10. 15-19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센터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보수과정	10. 23-25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센터

11월 협회 교육 안내

■ 보건관리자 교육

교육명	교육일자	교육장소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신규과정	11. 05-09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센터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보수과정	11. 20-22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센터

■ 전문화 교육

교육명	교육일자	교육장소
재해자구조 및 응급처치(전문)	11. 21-23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KIHA NEWS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센터 50년사 출판기념회 개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센터장 구정완 교수)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10월 12일(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센터 50년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센터는 직업환경의학 분야가 생소하던 1962년에 국내 최초로 관련 연구소 및 센터를 설립, 50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광부 진폐증을 비롯한 직업병의 진단과 치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 제도 시행, 석면 관련 연구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등 국내 직업환경보건 분야의 연구와 제도 정착을 선도해 왔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지난 50년간 국내 직업환경보건 분야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해 보는 내용을 다뤘다. 단일 사업장에서 최대 직업병 환자를 발생시킨 원진레이온 사건, 환경성 석면노출, 국내 직업환경보건의 중심 주제인 근골격계질환 이슈, 여전히 직업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및 정신보건 분야 등 우리나라의 직업환경보건분야의 주요 사건과 과제들을 고찰하였다.



이어진 50년사 출판기념회는 직업환경의학센터의 50년사를 통해 우리나라 직업환경보건의 50년사를 추억하고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